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조감도

4천만이 살고싶은 호국충절의 고장 - 충남

홍보기 부족해서인지 광역시·도에서는 전국 최초로「공중화장실 조례」를 제정하고 「공중화장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에는 활동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편집부)



글_구연완 수질보전과장

충청남도 소개

국토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충남은 8,586km²(전국 토의 8.6%)의 면적에 193만명(전 인구의 4.1%)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6개 시와 9개 군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우리 충남은 금년도를「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삼아 충남 미래 100년의 새 지평을 여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82회 전국체전(10. 10~10. 16)이 개최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4. 26~5. 19) 행사는 우리 도의 당면한 최대 현안 사업으로 성공적 개최와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선두주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현황

도내 공중화장실은 총1,740개소로 편의상 관리주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국가관리 130개소(철도역:30, 국립공원:91, 문화재:9)이고, 시·군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705개소(시장:115, 문화재:207, 관광지:184, 기타:199)이며 다중이용시설인 민간 관리 905개소(터미널:31, 휴게소:33, 주유소:841)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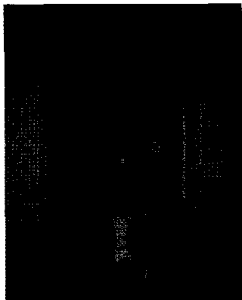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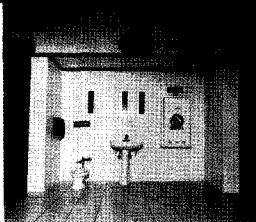
작년부터 공중화장실 실태조사와 함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3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공중화장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금년까지 약48억 원의 예산으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예절의 고장
-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우러진 문화의 고장
-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고장
- 산업과 경제가 풍요로운 운택한 고장



화장실이 부족한 곳에 28개소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간이화장실은 위생적인 포세식화로 개선하고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의 특징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공급자인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청결의식 및 청결사용 역할이 중요하여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우수화장실(Best) 및 불결화장실(Worst)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홍성군을 시작으로 군 단위에서는 1일을 시 단위에서는 2일씩 전시 후에 마지막으로 도청의 구내식당 앞에서 7월 4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금년 말에 우수 시·군 및 화장실 문화개선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계획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에 필요

한 자금을 응지하는 등 민간소유 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 충남 실현

오늘을 사는 우리와 후손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환경보존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며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른충남」가꾸기 7대 사업중에 하나로 추진되는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은 격조 높은 화장실 문화를 창출하여 호국충절의 고장이며 자랑스런 백제문화의 본 고장으로 찬란한 국보급 문화재와 유서깊은 역사 문화 유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문화관광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

천안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안면도 꽃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완벽한 준비와 불결한 화장실 개선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어우러진 인간중심의 살맛나는 충청남도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